



어버이날... 미녀와 춤을

보혜양조(左) 임직원과 대학생으로 구성된 '젊은 일세 사랑 나누미' 봉사단과 일세주 모델인 가수 백지영(오른쪽)씨가 7일 오전 광주시 남구 '사랑의 식당'에서 열린 '어버이날 맞이 효사랑 실천' 행사에 참석해 할머니·할아버지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천안함 화약성분 '어뢰' 결론

합동조사단, 고폭약 'RDX' ... 독일제 가능성 정밀 분석

김정일 방중 이후 조사 급물살

민·군 합동조사단은 7일 천안함의 선체 등에서 검출한 화약성분이 어뢰 탄두가 폭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사실상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천안함 연돌(연통)과 절단면, 함미 절단면과 맞닿은 해저에서 각각 검출된 화약성분은 모두 TNT보다 위력이 강한 고

폭약인 'RDX'(백색·결정성·비수용성 강력폭약 성분)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 화약은 기회가 아닌 어뢰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합조단에서 어뢰 폭발로 결론을 내린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절단면 근처에서 3~4개의 작은 합금 파편을 발견했다"면서 "이는 어뢰의 외피를 구성하는 알루미늄과 마그네슘 합금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다만, 합조단은 천안함 근처에서 터진 어뢰가 독일제일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합금 파편이 중국과 러시아, 독일 제품인지를 정밀 분석 중"이라며 "북한이 자신들의 소행임을 감추기 위해 우리 나라에서 사용하는 독일제 어뢰를 사용했을 가능

▲RDX(Research Department Explosive)=사이클로 나이트(cyclonite)로 불린다. 1898년 독일의 게오르그 프리드리히 헤닝 박사에 의해 처음 발견됐고, 이후 특허를 얻어 폭약으로 사용됐다. 일반적인 TNT(Trinitrotoluene)보다 점화속도가 50배에 달해 폭발력도 더 강하지만, 비교적 안전하고 제조에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다.

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해군의 209급 잠수함에는 1발당 8억~10억원 가량의 독일제 'SUT' 선 유도(와이어 가이드) 중어뢰가 탑재되어 있다.

군 당국은 이처럼 천안함 사고원인이 사실상 밝혀진 만큼, 오는 20일께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발표한다는 애초 입장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함에서 침몰과 관련된 '물증' 확보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기도 하지만,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으로 임상이 미묘해진 중국이 어떠한 '판단'을 내리기 전에 객관적인 조사결과를 내놓겠다는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한 나라당 지도부와 가진 청와대 조찬회 등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결과가 나오면 지난번 한·중 정상회담 때 약속했던 대로 중국 측에 통보하고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렇게 할 경우 중 국 정부도 납득하고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희뉴스

"투표율을 높여라"

6·2 지방선거 20여 일 앞...선관위·각 정당 분위기 띄우기 '올인'

6·2지방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 분위기가 좀처럼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정당은 투표율 끌어올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투표율 갈수록 하락=광주·전남선관위에 따르면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1995년 제1회 지방선거 투표율이 광주 64.9%, 전남 76.1%를 기록했지만, 1998년 제2회 지방선거에서는 광주 45.1%, 전남 68.2%로 크게 떨어졌다. 2002년 제3회 선거에서는 광주 42.3%, 전남 65.6%를 기록했고, 2006년 제4회 선거에서는 광주가 46.3%로 소폭 상승했지만, 전남은 64.3%를 기록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유권자 무관심 심화=민주당의 잇따른 공천 파열음으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오는 6·2지방선거 투표율 역시 역대 지방선거에 비해 높지 않을 전망이다. 선관위는 2006년 선거를 기준으로 투표율 목표치를 50% 이상으로 설정했지만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경선에서 선거인단인 당원과 일반 주민의 투표율이 저조했던 점도 이를 방증하고 있다. 민주당 당원 경선 투표율은 40~50%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대의원과 우대 당원 등 열성 당원이 대부분이었고 일반당원은 참석률이 저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천안함 침몰사건 이후 1개월가량 '천안함 정국'이 전개되면서 선거분위기가 살아나지 못했고, 광역단체장 후보자도 이번 없이 예상했던 수준에서 결정되면서 유권자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이번 선거에선 교육감, 교육의원까지 선출하는 1인8표 제도가 처음 적용되는 만큼 복잡한 투표 방식도 투표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선관위는 판단하고 있다.

◇30대 이하 투표 유도=광주·전남 선관위는 올 지방선거 투표율을 목표치를 각각 50% 이상과 65% 이상으로 잡고 투표율을 올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광주선관위는 각 차지구 선관위 별로 투표참여 홍보와 함께 1인8표 제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선거 기록사진을 통해 60년 선거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선거문화 체험전'도 가졌다. 또한, 프로야구 경기 중 '1인8표 제' 전광판 홍보, 퀴즈 이벤트 등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전남선관위도 30대 이하 유권자의 참여 촉진을 위해 '사이버 참 선거 도우미' 50명을 위촉하는 한편 홈페이지를 통해 투표율 맞추기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지역 살림꾼 '내 손으로'=6·2 지방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보다 중요하다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광역·기초단체장과 함께 광역·기초의원은 물론 교육감과 교육위원 등을 동시에 뽑는 중요한 선거기 때문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이 이번 선거에 모두 선출되기 때문에 정말 한 표를 잘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결재와 균형'을 위해 지역정당 득표를 꾀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 젊은 층의 투표율이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당 새 원내대표 박지원씨

갈등·대립 여야관계 변화 주목

민주당 원내대표에 박지원(68)의원이 선출됐다. <관련기사 2면> 박지원 의원은 7일 재적의원 88명 가운데 81명이 참가한 원내대표 경선 결선투표에서 49표를 획득, 31표에 그친 강봉균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박 의원은 1차 투표에서 34표로 1위를 차지했으나 당선에 필요한 재적

과반수에는 미달, 2위인 강 의원(17표)과 함께 결선에 진출했다. 김부겸(16표), 박병석(10표) 이석현(5표) 의원은 1차 투표에서 탈락했다.

박지원 원내대표의 등장으로 미더어 법과 세종시, 4대강 사업 등 각종 정국 쟁점을 둘러싸고 갈등과 대립을 지속해 온 여야관계에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지원 대표

박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를 통해 "투쟁할 때는 투쟁하고 협상할 때는 협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헌 개정 등을 통해 당내 표를 정점으로 한 현재의 단일지도체제를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당내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5월 호남예술제

미술·작문대회

신청기간 : 2010.5.6(화)~5.13(화)
발표대회 : 2010.5.24(월)
발표장소 : 2010.5.27(목), 28(금)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 호남문화재단, 호남문화재단
후원 : 호남문화재단, 호남문화재단

문의 : 호남문화재단 (062)222-8111

www.honamart.com